



2월의

육계저망



장민기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버들농원 대표

〈개황〉

전반적인 축산불황으로 양축가들의 고통이 심할 것으로 사료된다.

86년 1월의 육계관측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신정 이후(4~7일) 잠시동안은 1,000원~1,150원대까지 가격형성이 이루어졌으나, 바로 이 가격이 무너져 700원까지 하락하는 사태까지 발생되었다.

1월 27일 950원까지 상승되었으나 바로 하락하여 800원대에 머무르면서 약간 더 하락할 기미마저 보인다. 구정을 바로 앞두고 워낙 소비가 부진한 때문으로 보이는 하나, 이 시기를 겨냥해 입추의욕이 너무나 과열되었던 때문에 시세도 생산가를 밀돌게 될 것 같다.

입추의욕은 계속 과열되어 1월 말경까지도 거의 3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육계가격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석〉

1) 1월의 닭값은 85년 11월의 육계전기사료 1만7천톤 미만으로 보고 병아리 입식숫자를 적

표 1. 82~85 사료, 병아리생산수, 생산잠재력, 가격 비교

월	년도	사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잠재력 (천수)	가 격 (원/kg)
		전기	후기			
1	83	18.8	29.4	8,659	12,612	1,124
	84	13.4	25.9	7,394	16,521	995
	85	19.3	26.8	11,500	14,596	1,115
	86	(추)22.0	(추)33.0	(추)13,750	13,700	909
2	83	20.8	31.4	10,284	13,070	1,047
	84	12.9	16.5	9,356	17,551	1,134
	85	18.8	28.3	12,000	14,519	1,050
	86	(추)23.5	(추)35.0	(추)14,688	14,000	(추)800
3	83	27.3	41.5	13,130	13,880	739
	84	23.3	19.7	12,922	18,534	1,353
	85	22.0	31.5	13,000	15,164	750
	86				14,500	
4	82	23.2	31.0	14,024	13,966	1,213
	83	28.1	43.8	14,004	14,655	739
	84	26.7	30.2	14,060	19,158	1,353
	85	22.9	33.8	14,500	15,719	870
5	82	26.0	36.0	14,420	14,775	1,026
	83	29.2	43.9	13,608	14,845	789
	84	29.9	42.0	16,196	18,809	1,048
	85	25.2	35.6	15,500	16,500	870

6	82	28.5	45.0	15,807	14,923	818
	83	32.1	48.4	15,420	14,239	902
	84	29.0	44.6	13,022	18,124	733
	85	27.7	39.5	16,500	17,000	870
7	82	26.4	49.3	14,661	13,822	923
	83	28.6	49.6	14,464	12,898	876
	84	23.7	41.5	11,433	16,668	987
	85	27.1	42.0	16,000	14,500	950
8	82	22.3	40.4	12,394	12,734	902
	83	26.6	44.9	12,609	11,893	899
	84	20.1	28.8	11,029	14,686	1,180
	85	24.4	33.2	14,500	13,000	1,100
9	82	21.4	44.3	11,867	11,828	816
	83	23.9	48.9	13,340	11,469	802
	84	19.5	29.1	10,038	13,408	977
	85	19.9	35.5	12,000	12,500	840
10	82	17.0	31.3	9,462	11,335	862
	83	22.5	43.3	11,361	11,362	608
	84	19.4	29.5	9,980	13,064	900
	85	17.8	31.8	11,500	11,000	714
11	82	18.1	30.8	10,031	11,541	928
	83	20.3	37.5	10,373	13,389	747
	84	19.6	28.1	10,483	13,810	952
	85	18.8	28.0	11,000	11,000	831
12	82	20.7	36.3	11,520	12,077	1,040
	83	17.9	38.8	8,193	15,069	772
	84	20.8	33.5	10,654	14,349	951
	85	20.4	32.6	12,800	11,500	950
계	82	245.0	401.2	137,114	151,523	977
	83	296.1	501.4	145,447	159,811	845
	84	258.3	369.4	136,567	194,682	1,000
	85				177,000	

정수준인 1천 1백만수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육계용 사료 생산량의 집계에 중요한 차질이 생

겨났다. 일부 사료공장에서는 사료요구율 2.0미만의 고능력 사료를 공급한다는 구실로 “특수사료”란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육계농가에 이용을 권장하고 이의 생산량을 계속 늘려가는 모양인데 정확한 생산 통계를 입수할 수가 없었다.

2) 2월의 닭값은 11월 이후 병아리생산이 계속 증가하였고, 1월의 닭값이 예상 가격을 훨씬 밑도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소비는 연중 가장 적은 달이어서 생산(공급)과 소비의 발란스가 깨어질 것 같다. 더구나 계산에 넣지 않았던 특수사료의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어서 가격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3) 3월의 닭값을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여러 사료회사에서 생산되는 특수사료 중 육계 전기, 후기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낼 방법이 없고 각 사료 공장에서의 적극적으로 출선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다만 3월부터는 닭고기의 소비가 조금씩이나마 느는 계절이어서 소비 신장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4) 설상가상으로 닭고기와 가장 가깝게 대체 소비효과가 있는 돼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낮은 가격이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고 보면 닭고기 소비자의 일부를 돼지쪽에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5) 어쨌든 육계생산자들이 느끼고 있는 생산 예상량 이상의 훨씬 많은 닭고기가 생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과감한 생산 감축이 육계 경영의 적자폭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표 2. 표본 10개 사료메이커의 생산량 순별 비교

사료	순 년도	9			10			11			12			1(85·86)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 기	84	2,543	2,417	2,331	2,337	2,461	2,524	2,328	2,173	2,264	1,946	2,425	2,865	1,837	2,283	3,205
	85	2,475	2,380	2,215	2,240	1,979	2,567	2,282	1,858	2,442	1,749	1,903	2,397	1,631	1,877	(추)2,500
후 기	84	3,097	3,821	3,332	3,216	3,214	3,145	2,975	2,979	3,000	3,245	3,472	3,517	2,375	2,370	3,247
	85	3,019	3,741	3,642	3,190	3,054	2,852	2,299	2,311	3,044	2,040	2,510	3,418	1,637	2,119	(추)3,200
계	84	5,640	6,238	5,663	5,553	5,675	5,669	5,303	5,152	5,264	5,191	5,897	6,382	4,212	4,653	6,452
	85	5,494	6,121	5,857	5,430	5,033	5,419	4,581	4,169	5,486	3,789	4,413	5,815	3,268	3,996	(추)5,700